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물류공동화 시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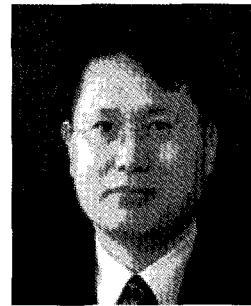
1. 머리말

우리산업의 고비용·저효율 중 상당부분은 높은 물류비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GDP 대비 12%에 달하는 국가물류비는 9%대에 달하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물류비에 비해서 과다한 수준으로 이는 높은 인건비·부지 임대료 등과 함께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고비용의 물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집배송단지 조성, 산업 단지 공동물류센터 건립 등의 시설확충과 물류표준화·정보화·신기술개발 등 물류체계 개선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싱가포르, 일본 등 우리의 경쟁국에 비해 물류기반 경쟁력이 미진한 실정이다.

물류비 상승의 지속되고 있는 원인은 도로·자가화물차편향의 수송구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개별기업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자적인 물류센터 건립의 난립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겠다. 즉, 물류량이 적정 규모에 도달하지 못하는 단위기업 차원의 물류센터 운영은 재고 및 장기 死藏 재고의 증가, 물류 관리인력의 증가를 야기시켜 오히려 물류비용을 늘어나게 함으로써 물류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한 수도권 지역의 물류센터는 기업 투자 자원 및 토지의 비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물류수



산업자원부 유통서비스정보과
조택연 사무관
tjyo@mocie.go.kr

요에 대한 단일기업의 처리능력을 증대시키고 물류효율화를 위한 합리화의 위한 수단으로 업종별·지역별·권역별로 공동 물류시스템의 구축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2. 물류공동화의 개념 및 목적

물류공동화란 물류활동에 필요한 노동력·수송수단·보관시설·정보시스템이나 도로·항만·공항 등 물류인프라를 복수의 파트너와 공유하여 물류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유하는 물류자원의 종류에 따라 공동수배송, 공동물류센터 등으로 구분될 수 있고, 공동화에 참여하는 업체의 종류에 따라 同業種 공동화와 異業種 공동화로 분류하기도 한다.

물류공동화는 SOC시설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고물류

비 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인식됨에 따라 1990년대 중반 이후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 다각도로 추진되었으며, 특히 경영자원이 절대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물류 시설·기기·인력을 공동 활용하는 공동보관, 공동수배송 등을 실행함으로써 물류효율 향상시키고 있다.

그러나 물류공동화의 확대를 위한 민·관의 공동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추진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이처럼 물류공동화의 추진실적이 부족한 원인은 주체가 불분명하여 보다 적극적인 추진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또 그동안 필요성만 강조되었을 뿐 공동화에 대한 효과의 불확실성, 조직내부의 반발 등 물류공동화 저해요소를 제거·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공동화의 기본이 되는 기업간 물류 표준체계·정보시스템의 호환성 등 물류공동화 추진을 위한 기반요소가 절대 부족한 것도 물류공동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된 요인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목적은 물류효율화를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물류활동의 규모 대량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것이다. 즉 개별기업 차원의 물류활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써 조달, 생산, 판매, 유통의 모든 경영과정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물류공동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물류비용 절감, 물류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물류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들 수 있으며, 이는 개별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물류인력 조달 곤란, 토지 및 자본의 한계, 에너지 비용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3. 물류공동화 추진현황

정부의 물류공동화 추진 방향은 업종별, 지역별, 산업단지별, 권역별 공동물류화 추진으로 다단계알선, 개별운송, 정보공유 기피 등 비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개선을 통한 물류비 절감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산업단지 공동물류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현재 시화산업단지와 창원산업단지 두 곳에 물류창고를 설립, 전문물류업체의 협력을 받아 산업단지공단 입주 업체들의 물류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산업단지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물류지원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현재 시화단지과 창원단지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물류 지원형태는 보관, 단지내와 단지 인근간 수송물량에 대한 서비스 등 개별 기업들의 단독 아웃소싱 물류에 대한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화와 창원간 장거리 대량수송이나 아이템이 비슷한 화물과 목적지가 같은 화물을 묶어 처리하는 공동수배송은 물량이 미비한 편이다. 단지내 입주업체들의 제품이 다양하고 입·출고시점, 목적지까지의 배송 희망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물량과 규모로는 공동수배송 서비스를 구현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한편, 10대 도시권 배송권역별로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도록 정부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도시 권역별로 중소기업의 요구에 적합한 공동집배송센터 건립을 지원함으로써 물류시설의 대형화, 전문화, 공동화를 통한 기업간 협업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해 집하·검품·검수·포장·가공·보관·배송·정보시스템 등의 도매물류활동상 필요한 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춘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으로 중소유통조직 및 일반소매점의 공동화, 조직화, 협동화 등 규모의 경제실현과 물류비용 절감으로 중소유통 물류구조의 혁신을 이루도록 추진하고 있다.

4. 물류공동화 추진계획

정부는 물류공동화의 활성을 위해 물류공동화 효과가 큰 업종·품목과 물류공동화 시설 및 부지확보 업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 시범 사업 결과를 분석한 후 최적모델을 개발하여 제지, 섬유, 출판등 여타 산업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또한 권역별 산업단지 물류공급망(SCM)지원센터 건립

하여 산업물류 전반에 대한 물류공급망(SCM)을 개선하는 물류클러스터 구축할 예정이다. 물류공급망 지원 센터는 3자물류(3PL)서비스가 가능한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구축하며, 보관·수배송·하역·유통가공·수출입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기여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추진할 물류공동화사업은 공동물류를 수행하는 전문물류업체(제3자물류업체) 위주의 지원을 통해서 전문물류업체가 모든 물류기능을 일괄로 처리하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경영자원이 빈약한 중소기업·유통업체들과 충분한 물류시설 및 노하우를 보유한 대기업·전문물류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전체 물류프로세스의 효율화를 달성토록 하겠다.

이 밖에도 현재 추진중인 공동도매물류센터를 전국을 5개 권역(수도권 11, 부산권5, 호남권 6, 중부권 3, 영남권 5)으로 구분하여 2007년까지 총 30개동(중물류 5동, 소물류 25동)을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5. 물류공동화 기대효과

물류공동화의 가장 직접적인 기대효과는 기업의 물류비 절감이다. 제조업체,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원가를 구성하는데 물류비의 비중이 크며, 따라서 물류는 아웃소싱 등 제3자에 위탁 또는 최소화함으로써 업체는 물론 물류와 함께 수행하는 구매와 영업을 분리해서 제조 이외의 부분을 최소화하는 한편 제조업 본연의 부문인 생산(제조)에만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을 집중하도록 할 수 있다. 즉, 물류부문의 효율화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여 최적적인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물류공동화로 인한 기대효과

구분	기업	국가
공극적효과	기업 경쟁력 강화	물류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강화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경쟁요소에 역량집중 - 물류코스트 절감(운임, 인력 등) - 물류서비스 향상 - 물류부문 투자절감으로 현금유동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물류비 절감 - 효율적 물류체계 실현 - 사회적 비용감소(교통혼잡 완화 및 환경오염 방지 등) - 투명성 제고를 통한 건전거래관행 유도 - 표준화 등 물류단위의 통일에 기여 - 정보화 기반 확충
	참여기업의 물류코스트 절감	경제사회적 주요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배송단가 자체의 하락 - 아웃소싱에 따른 물류관련 인력 절감 - 핵심역량으로 물류인력 재배치 - 물류관련 업무 최소화/간소화 -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무형의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효율 극대화 : 공차율감소, 적재효율 향상 - 거래관행의 개선에 의한 투명성 제고 - 전자상거래 기반확충 - 산업 및 지역적 발전효과